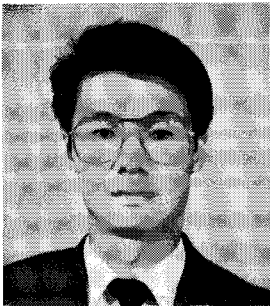


제가 평소 미국 일본등 선진외국에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다른 아닌 전통 음식점이나 과수원, 혹은 목장 등 비록 힘들고 보잘 것 없는 직업이지만 자손이 대대로 가업을 이어 받아 몇 백년 동안 계속되며 색다른 맛과 특유의 경영으로 자기업을 사

나는 유질향상 이렇게 했다.

조사료 사양체계가 좋은 우유 생산의 기본이다



육능목장 지 일 성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영리 산81

랑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꺼리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선진 외국처럼 사회구조가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음지에서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아니라 홀대하고 멸시하는 사회풍토이다. 이런 썩은 사회구조가 언제나 탈바꿈 될지 더불어 잘사는 세상 그 꿈은 아직도 멀고도 먼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1963년 목장을 시작 2대째 운영

우리 육능목장은 우리나라 낙농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63년 아버님이 목장을 시작한 이래 지난 1988년 제가 가업인 목장을 이어 받아 2대째 젖소와 함께 삶을 영유해 가는 낙농가족이다.

저도 대학의 전공을 찾아 다른 취업을 택해 도시생활을 해보았으나 어린시절 부터 겪어온 목장생활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아버님이 권유도 있고 해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고향을 찾았다. 이왕 낙농에 투신하여 가업을 이어 받은 이상 목장 경영함에 제일을 추구해 보자는 각오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으며 스스로 연구하며 노력해 왔다.

축산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인공수정사 2개월간 교육을 받아 인공수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연세대 부속농장 농촌개발원에 입교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 낙농의 전문을 넓혔다.

국제경쟁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질향상과 생산성을 높이는 길뿐

그동안 여기저기 얻은 경험과 낙농 생활에서 얻은 결과는 우리나라 낙농도 외국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가족 노동력에 최소 경비 지출을 통해 최대의 생산성을 높여야 함은 물론 국내 우유가 외국 우유보다 맛이 있고 신선하며 깨끗하여 품질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저품질 제품을 생산하며 국민의 애국심만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5년전에 유질을 향상 시켰다.

88년 목장을 이어받으면서 낙농경영의 최고를 추구하겠다는 각오는 이미 밝혔듯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에 의해 이미 최고의 좋은 우유를 생산하고 있었다.

젖소의 생명은 많은 우유 생산에 있다는 생각에 종축개량에 1차적인 목표를 세워 내가 직접 우리 목장에 맞는 우수 정액을 선택하여 직접 인공수정으로 개량을 꾸준히 실시 우리 목장은 두당 평균 산유량이 25kg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개체별 모든 기록은 내 개인 컴퓨터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본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질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먼저 세균수는 어느 목장이나 목장주가 사양관리시나 착유시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균수가 많고 적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목장은 유방세척부터 특수하다. 서울 직장생활시 토목계통에서 근무하였기에 내가 직접 고안하여

우사에 파이프라인 설치처럼 뜨거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파이프를 설치하여 소의 가까운 곳에서 꼭지에 꼽아 고압분무기를 연결 유방을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고압에 뜨거운 물로 유방을 깨끗이 세척하므로 이 물질 하나 붙어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세균이 없을 수 밖에는, 여기에 착유실이 통풍이 잘되어 1차로 세척하고 끝날 무렵에는 세척한 유방이 마를 정도로 건조하나 다시 깨끗한 흰 수건으로 수분을 완전 제거한다. 세균증식에는 습도가 주범이라는 것 짚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매 착유후 뜨거운 물로 우사바닥을 청소하여 건조시키며 1주일 꼭 한번은 우사소독을 실시한다. 파이프라인 소독과 냉각기 청소는 매일 실시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으로 사료된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을 유질차등제를 실시하기 전인 몇해전 부터 계속해오고 있다. 유질 차등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목장은 아직 세균수가 2만을 넘어본 일이 없다.

처음 이 방법을 실시하니 소들이 고압에 뜨거워서 그런지 싫어해서 한편으로 염려를 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여 걱정도 하였으나 한동안 계속하여 실시하니 소들이 더욱 좋아하고 비유도 잘되는 것 같다.

단 약점이라면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해야 하므로 뜨거운물을 끓일 수 있는 장치와 물탱크등 설치비가 부담되는 경우와 전기료가 약간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이미 실시한 유질차등제하에서 계속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금방 투자비를 뽑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양질의 우유를 국민에게 보급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체세포수를 줄이는 문제다. 우리 목장도 체세포수를 줄이는데 많은 시간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다.

체세포수는 유방염이 걸린소가 많은 소중 한 두마리만 있어도 체세포수가 엄청나다. 저도 체세포수를 줄이기 위하여 70마리의 착유우중 30두 이상을 도태해야만 했다. 물론 영세농인 우리나라 목장 실정에서는 쉬운 방법은 아니다.



젖소의 조사료 사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사료 생산에 열중하고 있는 지일성씨

저는 목장 시작시 부터 유방염을 퇴치하고자 매주 한번씩 시험관에 샘플을 채취 근처에 있는 군 농촌지도소를 찾아 CMT 검사를 받아 유방염 유무를 검사하여 유방염을 치료해 나갔으며 유방염 치료하며 느낀 것은 유방염 치료는 착유시 치료하기란 무척 힘들고 건유시에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건유우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겠다. 또한 체세포수는 단시일 안에 줄어들지 않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제가 생각해도 열성적으로 시료를 가지고 군농촌지도소를 찾아 CMT검사를 받으며 노력했지만 만성 유방염을 걸린 소들은 결국 도태해야 했다. 저능력우도 태우도 있었지만 유방염이 걸린 소를 도태하다 보니 30여두를 도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유질차등제가 실시된 6월이후 체세포수가 10만을 넘어본 일이 없다.

물론 최근에는 유방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료급여 관계, 축사청소관계, 착유기 라이너의 고무장력 및 속도, 착유기의 진공압, 맥동기의 맥동수등 세밀히 관찰

하고 있으며 착유시 유방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결국 세균수나 체세포수는 유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목장주가 목장 관리에 얼마나 열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저는 자랑할 것 까지 없지만 유질차등제가 실시한다 해서 허둥지둥 하루 이틀에 유질을 향상시킨 것은 아니다. 이미 2~3년 전 부터 유업체 관계자가 방문하면 냉각기에서 우유를 떠서 그냥 마실 정도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해 왔다.

낙농은 철저한 조사료 위주의 사양이 필요하다

펜을 들었으니 우리목장의 사양관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소개하면 요즘은 인력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대부분 목장이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화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젖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료 위주의 사양에서만 소득이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목장 15천평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엔실리지를



육농목장은 뜨거운 물이 흐르는 또 하나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다.

년중 급여하고 있으며 3,000평까지 임대 연맥 및 호맥을 파종, 봄부터 가을까지는 방목하고 있다. 또한 항상 벼짚도 충분히 구입해서 급여하고 있다. 또한 고능력우의 사양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알팔파도 매년 구입 년중 꾸준히 급여하고 있다.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야 소화기 계통 질병은 물론 각종 질병에 강하고 번식장애도 없어 1년 1산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조사료의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 안해도 모두 알고 듣고 있는 상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러가지 목장 여건상 문제점이 있어 조사료 사양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줄 안다.

앞으로 농후사료 위주의 낙농이 살아남기 못할 것이라는 저의 지론이다. 아무리 귀찮아도 최소한의 벼짚만이라도 충분히 갖춰 목장 경영을 했으면 한다.

축산위탁주식회사 설립을 계획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은 90% 이상이 낙농을 삶으로 하고 있는 낙농단지이다.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우리목장의 장비를 가지고 옥수수 파종에서 부터 농약살포, 엔셀리지 작업, 벼짚 곤포작업을 품앗이 해오고 부득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라는 최소의 경비를 받고 도움을 주어 왔다.

하지만 우리목장의 장비(트랙터 90마력 2대, 50마력 1대, 38마력 1대, 사각 벼짚 곤포기, 농약살포기 등)가 다수 있으나 아직 농가에 요구하는 위탁일을 하기란 부족하다. 또한 혼자서 비싼 장비를 구입하기

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농촌일을 맡아 해주는 영동회사처럼 축산도 위탁회사를 설립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 현재 계획 추진중인데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은 자금이다.

마음만 가지고 있지 돈이 많지 않은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기에 자금이 턱없이 모자란다. 현재 정부에서 영농주식회사는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에도 이러한 자금이 지원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농촌은 특히 축산은 전문화, 전업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전업화 전문화가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들어 얼마전 천만원이 넘는 곤포기를 구입하는데 있어 농기계 반값 공급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면 훨씬 부담이 적었을텐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어 큰 부담이 되었다.

싼값에 곤포기를 공급하면 더 많은 벼짚을 거두어 활용하게되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좋고 농후사료 만드는 원자재, 알팔파등 조사료 수입도 줄어 외화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개방화에 대비 농가들은 지구책을 강구하며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갈망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기계 반값공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등 문제시 되는 것들의 과감한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추구하고 싶다.

요즘 베베기가 한창 시작되면서 낙농인들의 벼짚 곤포작업에 여념이 없다. 나도 주위 낙농인들과 지금 까지 4만여 평의 벼짚 곤포작업 끝내고 앞으로 약 6만여평의 곤포작을 더해야 하기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다.

좀 한가한 시간이라면 얼마 안되는 목장 경험이지만 서로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데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했어야 했는데 죄송할 따름이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욱 좋은 내용을 소개할 것을 약속하며 끝으로 풍부한 조사료 급여만이 유질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전국 낙농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